

“동네 이름 茶道 짱아요”

국내 최대 야생녹차단지 조성 나주 다도면 주민들



나주 불회사가 지리한 다도(茶道)면은 덕룡산 일대 3만여 평의 야생차밭을 '야생녹차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불회사 철안 스님은 "비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란 차는 맛과 향이 으뜸이다"고 말한다.

야생차를 육성하고 보급하는데 지역 면사무소와 주민이 발 벗고 나섰다.

국내 최대 야생차 근린지 나주 불회사가 지리한 전남 나주시 다도면(면장 김근용)은 '차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첫 번째 행사로 다도면은 녹차 첫 잎을 따는 곡우를 맞이해 오는 4월 20일 불회사에서 '제1회 다소(茶所) 석장생축제'를 열고 '다신제(茶神祭)'를 올린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석장생축제는 덕룡산 불회사와 운흥사 입구에 세워진 석장생(중요민속자료 11.12호)에 다도면 25개 마을주민이 모여 고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날 석장생제에 이어 주민들은 덕룡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첫순을 따기에 앞서 다신에게 알리는 제를 지낸다. 또한

제1회 다소 석장생축제 열어 '다신제' 25개 마을 차만들기 차밭기행 등 행사 불회사 주변 5만평 녹차밭 조성 계획

불회사 일주면 주위에서 전통차 만들기, 차 시음회, 차잎 따기, 차밭산책 등 다양한 야생차 관련 행사와 목장생제우기, 들타살기 등을 펼친다.

이처럼 다도면과 주민이 나서 야생차 관련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곳 지명의 유래에 근거한다. 다도(茶道)면의 지명은 본래 '다소(茶所)'로 이곳에서 나는 차의 맛과 향이 좋아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전한다.

특히 200여 년 전 운흥사에서 출가한 초의 선사가 <풍다송>에서 덕룡산 자생녹차

를 설명하고 있어 다도면은 오래전부터 야생차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덕룡산에 자생하는 야생차는 현재까지 약 3만여 평이 균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야생차는 불회사에서 '비로차(毗盧茶)', 운흥사와 동원암에서 '운설로(雲雪露)' 등의 전통차로 제조되고 있으나 야생차의 특성상 수량이 적어 시장에서만 쓰고 있다.

다도면이 덕룡산 야생차 복원을 위해 금년에 마련한 또 다른 사업은 불회사 일주면에서 사람 진인로를 따라 녹차단지를 조성하는 것. 다도면이 조성하는 녹차단지는 야생 녹차밭(5만평)과 녹차공원(1천5백 평)으로, 다원 및 부대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7억6천만 원을 나주시에 신청해 일부 확보해 놓았다. 녹차단지사업은 2004년도 1차



불회사 일대의 야생차밭은 '야생 녹차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으로 30평 규모의 전통 기와양식의 다원을 건립해 야생차 홍보 및 제조기법 재현, 가족단위 무료 시음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녹차공원에는 야생차와 조경수, 들잔디를 가꾸어 산책로로 활용한다. 다도면이 조성하는 야생차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야생차 생산·판매와 녹차 주말농장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061)330-8612, (061)337-3440

나주=이준엽 기자

인터뷰 김근용 면장

"덕룡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야생차는 비자나무 그늘에서 적당한 햇빛과 계곡에 흐르는 풍부한 수분으로 맛과 향이 국내 으뜸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덕룡산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야생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차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생산해 옛 다소(茶所)의 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의 야생녹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김근용 다도면장은 "야생차를 테마로 하는 가족단위 시음회, 다도예절, 녹차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야생차를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면장은 "녹차밭 조

기후 풍토 좋아 맛·향 으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성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작목반을 구성해 야생 녹차를 생산·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도면이 고향으로 어려서부터 불회사를 자주 찾았다는 김 면장은 "그동안 방치했던 야생차를 보호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불회사와 석장생, 덕룡산 자생차는 다도가 자랑하는 보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이 함께 보호해야할 소중한 문화"라고 강조했다.

김 면장은 "4월 20일 다도면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다소석장생 축제'에서는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연 속에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찰 차 모임

심곡암 다도회

천혜의 여건속 '평생공부' 다짐



지난 2003년 가을 단풍축제에서 다도 발표회를 여는 모습.

서울 성북구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자리 잡은 심곡암(주지 원경, www.simgokam.org). 이제 막 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진달래와 산벚꽃 등을 배경으로 30여 분 정도 걸어 오르면 심곡암을 만날 수 있다. 봄이면 산꽃으로, 가을이면 단풍으로 장엄되는 이곳에서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난다. 아니나 다를까, 매주 수요일마다

신행활동 일환으로 생활 심곡암서 봄, 가을 차 행사 시민선방에 다실 열 계획

심곡암에 올라 차를 나누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심곡암 다도회 회원들이다. 다도회는 지난 2000년, 평소 차를 즐기던 주지 원경 스님에 의해 결성됐다. 이후 오혜숙(56, 법명 불일행) 원장이 강의를 맡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을 개설해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다. 다도회의 전 과정을 이수하는데 3년은 족히 걸리지만 현재 10여 명의 회원들은 모두 '평생 공부'라는 마음으로 차를 배우고 있다. 단순

히 '다도'라는 기술만이 아니라 신행활동의 일환으로서 차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센터다 다도모임이다 해서 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사찰 다도회에서는 신도들간의 화합도 다지고 자신의 신행활동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마시는 차 한 잔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도회는 일년에 두 번 큰 행사를 치른다. 봄이면 라일락과 철쭉, 개나리 등의 봄꽃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산꽃축제에서 햇차시음회와 다도시연회를 펼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든 도토리나무 아래서 다도발표회를 열어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다도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심곡암의 명물 너럭바위, 절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너럭바위는 십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서 산사 음악회나 다도 행사를 펼치기에 안성맞춤이다. "다도회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이라는 회원들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요즘 다도회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창 불사(佛事) 중인 시민선방의 완공이다. 이곳에서 사찰문화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다도 교육을 하게 되고, 누구나 찾아와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실(茶室)도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다도회의 기반을 다져 온 심곡암 다도회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내실 있는 모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02)914-8860

인터뷰 오혜숙 원장

편안하고 내면 살피는 차생활 강조

"취미로 시작했던 차 생활이 이제 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차 생활 덕분에 신행과 차 마시는 일이 둘이 아님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도회 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오혜숙 원장은 회원들에게 '편안한 차 생활'을 강조한다.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 마시는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수행을 위한 것이니만큼 틀에 박힌 형식보다 편안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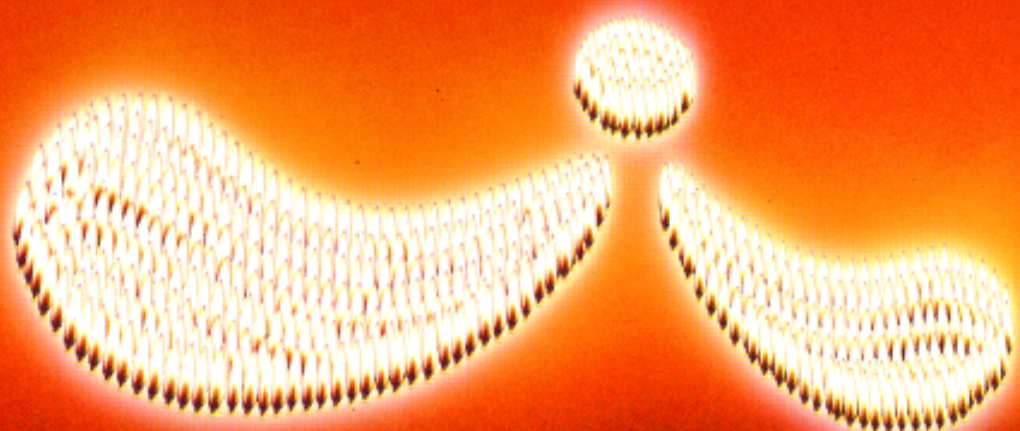
그대서일까? 오는 5월 열리는 산꽃축제 때 선보일 다도발표회와 6월에 떠나는 제다체험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오 원장의 모습에서 오히려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여수영 기자

작은 나눔의 빛이 모여 온세상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 복지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전개합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복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평생 수행에 정진하고 노후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계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불자님들의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스님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새로운 포교운동이자 재보시 실천운동입니다.

연인원 1,000여명의 종단 원로스님들

모실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노스님 수형과 고구분사업과 건립 운영합니다. 노스님 수형에는 요사채와 진료실, 배려간담실, 목욕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신도들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과와 상담실이 준비될 것입니다. 원로스님들을 임종부터 입적까지 종단에서 면히 모시겠습니다.

조계종의 사회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복지에 참여할 분자들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 보시의 실천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이렇게 참여하세요

- ① 생명보험금 보시보험 가입을 통한 참여
바리 뉘러있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 ②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가장 간편하고 큰 보시의 실천입니다.
- ③ 사찰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사찰 종합보험은 사찰의 화재, 재난, 도난, 훼손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찰선용 특수 보험입니다.
- ④ 화재보험 가입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사회복지단체, 중립학교 등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개인 모든 종단 등록 단체에게 권하는 참여 방법입니다.
- ⑤ 사후재산 기증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불자님들의 사후재산 기증운동을 통해 대적불사에 소요되는 기금이 조성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보험금나눔운동본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
TEL: 02(2011)-1753 FAX: 02(733)-8536 www.buddhism.or.kr
후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BBS, BTN
주관: (주)에이비엘비 TEL: 02(2003)-5793 FAX: 02(2003)-5786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참여하실 불자님은 후원서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